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121

〈식량 및 영양〉

식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2분기 식량 배급량 감소한 북한
황해남도에서의 장마철 피해 대책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토론

대외경제 122

〈대북제재〉

미국, 북한에 추가 금융제재
중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북중관계〉

두 달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북중무역
북중 석탄·철광석 무역량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북러관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려는 러시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125

<개성공단>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

대내경제

〈식량 및 영양〉

중앙일보(6.2), 중도일보(6.3), 한겨레(6.13), UPI(6.16), 노동신문(6.20), 노동신문(6.30)

식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북한의 식량난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015/2016 북한 식량 공급·수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콩·작곡 등 대체작물의 생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옥수수 등 주곡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최대 69만 4천톤에 이른다고 함.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임.

한편 FAO는 6월 2일 공개한 '작황전망과 식량 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 지정함. 이는 북한이 식량 부족분 중 아직 2만 3천톤(3.3%)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식량이 부족해서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식량 100만톤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음.

2분기 식량 배급량 감소한 북한

북한당국의 2016년 2분기 주민 하루 식량 배급량이 지난 분기 배급량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식량 배급량은 하루 360g으로 이 수치는 지난 2015년 배급량과 비교하여 12% 낮은 수준임. 현재 북한당국의 식량배급량은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2%에 불과한 상황임. 『미국의 소리』는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쌀과 옥수수 수확량 하락이 2분기 배급량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황해남도에서의 장마철 피해 대책

황해남도에서는 장마철 피해 대책을 세우는 일은 경제실무의 일이 아니고 올해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일임을 강조함. 이는 황해남도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 수령님의 유훈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함. 관개구조물과 강하천, 배수로, 배수 양수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론함.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토론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 중에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토론함. 자력자강의 정신을 통해 현대적인 농기계와 부속품을 더 생산해서 알곡생산 증대에 나서겠다고 다짐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NY Times(6.1), 환구시보(6.2), National Law Review(6.14), 동아일보(6.28)

미국, 북한에 추가 금융제재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er)’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조치를 함.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 할 수 없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미국 금융제재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행들과 싱가포르와 홍콩 등 중국 영토의 일부 기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추가적으로 이번 금융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전 세계 금융회사 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코드 시스템 망에 대한 접속 차단임.

중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중국이 6월 21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이로써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6월 24일 기준으로 총 35개국으로 늘었음.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은 결의안이 발표된 3월 2일의 90일이후인 6월 2일이었으나, 안보리는 마감 이후에도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음.

<북중관계>

CBS노컷뉴스(6.2, 6.22), 인민일보(6.15), UPI(6.22),

두 달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북-중 무역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가 4월에 이어 5월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2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함.

북중 석탄·철광석 무역량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5월 북중 석탄 무역량은 155만

<북-중 5월 무역액>

(단위: 백만달러, %)

| | 대중수출 | 대중수입 |
|-------|------------|------------|
| 2015년 | 201(-14.0) | 254(-15.9) |
| 2016년 | 176(-12.6) | 239(-5.9) |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6. 7. 15.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동월(약 181만톤) 대비 14.4% 감소했으며, 지난달 거래량(약 153만톤)과 비교하면 1.4% 소폭 상승한 수치임.

5월 북중 철광석 무역량은 21만 6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동월(약 14만톤) 대비 54.8% 증가했으며, 지난달 거래량(약 11만톤)과 비교하면 196% 급증한 수치임.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중국 『연변일보』는 중국 지린성 투먼에 조성 중인 ‘투먼 국제물류중심(센터)’이 9월에 개장할 것이라고 밝힘. 투먼 국제물류센터는 총투자비 2억 3천만위안, 연간 물동량이 150만톤에 이른다고 함. 『연변일보』는 이 국제물류센터가 투먼철도통상구를 확대해 북한의 나진, 청진 두 항구와 연동하여 동북아국제상업무역의 주역으로 부상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소개함.

<북러관계>

KBS(6.3)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려는 러시아

러시아 갈루슈카 극동개발구 장관은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북한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갈루슈카 장관은 결의안에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200만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운송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다가 올해 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참여중단을 결정한 바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데일리한국(6.2), CBS노컷뉴스(6.8), news1(6.9), Radio Free Asia(6.17), 연합뉴스(6.29), NEWSIS(6.30)

아래 표는 6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 국가명 (단체) | 지원일 | 지원품 | 지원액 혹은 지원량 | 비고 |
|-------------------|------------|-----|---------------------|--|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 2015년 | 지원금 | 800만달러 | 2011년 1,500만달러 2012년 1,200만달러 2013년 1,500만달러 2014년 600만달러 |
| 유럽연합 | 1995~2016년 | 지원금 | 1억 3,530만유로 | 130여 가지 대북 사업 지원 |
| 프랑스 | 2016년 | 지원금 | 30만유로 | 대북 식량 사업 지원 |
| 세계기금(Global Fund) | 2016년 | 지원금 | 368만달러 | 말라리아 퇴치 사업 |
| 세계식량계획(WFP) | 2016~2018년 | 식량 | 30개월 동안 15만톤의 식량 | - 1억 2,590만달러의 예산 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북한 주민 170만명 지원 |
| 스위스 | 2016년 1~6월 | 지원금 | 920만달러 | WFP를 통해 분유 지원 |
| 유엔 | 2016년 1~6월 | 지원금 | 800만달러 | 2015년 200만달러 |
| 유럽연합 | 2016년 1~6월 | 지원금 | 360만달러 | |
| 인도 | 2016년 1~6월 | 지원금 | 100만달러 | |
| 러시아 | 2016년 1~6월 | 지원금 | 300만달러 | |

남북교류

<개성공단>

동아일보(6.9)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

통일부는 6월 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발표함. 개성공단 기업인 29명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계설비 점검 및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방북은 부적절하다며 불허함.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했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uj_lee@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6.01] Treasury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Cutting Access to Banks
(The New York Times)
- [2016.6.02] 북 대표단, 중국에 식량 100만t 요청 (중앙일보)
- [2016.6.02] 유엔, 北에 부족자금 800만 달러 지원 (데일리한국)
- [2016.6.02] 中 지린성, "북-중 국경지역 '투먼국제물류센터' 9월 개장" (CBS노컷뉴스)
- [2016.6.02] US announces further steps to restrict DPRK's access to global financial system (환구시보)
- [2016.6.03] 러 극동장관 "대북 제재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속 추진" (KBS)
- [2016.6.03] FAO "北 식량부족분 3.3% 확보"...식량부족국가 재지정 (중도일보)
- [2016.6.08] EU "20여 년동안 대북사업에 약 1억 5400만달러 지원" (CBS노컷뉴스)
- [2016.6.09]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동아일보)
- [2016.6.09] 프랑스, 대북 식량 사업에 34만 달러 지원 계획 (news1)
- [2016.6.13] 북, 올해 식량 부족분 5년만에 최대 (한겨레)
- [2016.6.14] U.S. Treasury's 311 Action Against North Korea Intensifies Pressure on China (United Press International)
- [2016.6.15] China bans exports of more items to DPRK (인민일보)
- [2016.6.16] North Korea reduces rations again for malnourished population (United Press International)
- [2016.6.17] 북 말라리아 퇴치에 360만 달러 지원 (Radio Free Asia)
- [2016.6.20]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노동신문)
- [2016.6.22]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falls 13 percent (United Press International)
- [2016.6.22] 북-중 교역 두달째 감소 추세 (CBS노컷뉴스)
- [2016.6.28] 中,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총 35개국으로 (동아일보)
- [2016.6.29] WFP, 北 170만 명에 식량지원 계획 승인 (연합뉴스)
- [2016.6.30] 제재 불구 국제사회의 對北 지원 올 상반기 60%↑ (NEWSIS)
- [2016.6.30]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 (노동신문)